



제목	Из истории турецкого романа, 20-50-е годы XX века
발행언어	러시아어
발행처	Наука
발행일	1975.
저자	Алькаева Л.О.
출판도시	Moscow
페이지수	281
ISBN 또는 ISSN	

내용 요약

비록 소설이 문학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소설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마다 그 사회를 규정지을 수 있는 독특한 예술적 발전 형태들을 축적하고 있으며, 또한 시대적 생활상, 이념, 윤리적 이상, 사회갈등 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소설이 쓰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정치, 경제적,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문학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추정할 수 있다. 『1920-1950년대 터키 소설사』는 1967년에 출간한 『19세기 말~20세기 초 터키 소설의 주제와 주인공』의 후속편으로 1920년대~50년대의 터키 소설의 발전 과정, 예술적 특성, 이념적 성향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이 시기의 소설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 유형은 민족해방전쟁과 1차세계대전후 민중의 애국심 고취와 민족성을 강조한 민족문학이다. 두 번째 유형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 케말리즘에 실망을 하고 새로운 국가를 재구성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비판적 리얼리즘 문학으로, 민중의 삶, 지식인과 농민들의 관계, 터키의 현실,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농촌 문학으로, 민족해방전쟁 이전에는 농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지식인들이 이 전쟁을 통해 농민들의 애국심, 건장한 정신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 지식인의 눈으로 본 농촌, 농민의 삶에 대한 이전의 작품과는 달리 농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쓰여졌다.

저자는 1920년대~50년대에 소설에서 주로 다룬 주제들, 즉, 지식인과 민중, 역사의 주인공으로써의 민중, 인간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불공평에 대한 항거, 케말리스트의 시각에서 본 터키인의 삶, 농촌소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그 시대의 유명한 작가(야쿠브 카드리, 레샤드 누리, 사바하트틴 알리, 사드리 에르템, 나짐 히크메트, 케말 타히르, 사뮈 코다교즈, 야샤르 케말, 파키르 바이구르트, 사이트 파이크, 오크타이 아크발 등)의 소설에 나타나는 이념적 성향, 예술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